

# 재일동포의 국적과 정체성

정진성 \_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목 차

- I. 서론
- II. 재일동포의 국적변화
- III. 민족정체성과 국적
- IV. 조선적 재일동포의 정체성
- V. 한국적 재일동포의 정체성
- VI.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동포들의 정체성
- VII. 전망

### 국문초록

재일동포 특별영주자의 민족정체성을 심층면접을 통해 밝혀보려고 한 논문이다. 재일동포 특별영주자 집단은 일본으로 이주하여 정주한 지 100년에 가깝도록, 1, 2세는 물론 3, 4세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귀화를 하지 않고 본국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특수성을 갖는다. 아주 긴 시점으로 볼 때,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들은 틀림 없이 상당기간 매우 의미 있는 사회적 존재일 것이다. 재일동포들의 생활조건이 천차만별이듯이, 이들의 '정체성'도 실로 다양하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는 '민족'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은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한다. 불행하게도 그 민족은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 하나의 '국가'와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국적의

의미는 무엇이며 민족은 무엇인가의 질문을 가지고, 정체성을 추적했다.

## 주제어

재일동포, 특별영주자, 정체성, 국가, 민족, 귀화

.....

# I . 서론

## 1. 문제제기

재일동포<sup>1)</sup>가 세계의 다른 소수민족집단과 구별되는 특수한 점은 일본으로 이주하여 정주한 지 100년에 가깝도록 1, 2세는 물론 3, 4세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귀화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30만 명 이상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sup>2)</sup> 해방 후 귀국하지 않고 잔류한 사람이 64만 명이며,<sup>3)</sup> 이

---

1) 일본에 정주하는 한국적, 조선적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가 다양하다.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한인 등은 남북한 어느 한쪽을 지칭하는 용어이므로,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이 한동안 사용되었으나, 한국과 조선의 분단을 용인하는 용어라는 비판으로 사라졌고, 재일코리안의 사용이 늘어났으나 국가의 영어 이름이 들어간 것을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남북한 모두에서 재일동포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국가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정진성, 「재일동포' 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 『일본비평』 제7호, 2012, 258-287쪽. 이 글에서는 재일동포를 주로 사용하면서 경우에 따라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등의 용어도 같이 사용할 것이다.

2) 2015년 12월 일본재류자 한국적 457,772명, 조선적 33,939명이고, 이중 특별영주자는 한국적 311,463명, 조선적은 33,281명이다. (일법무성, [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

3) 1946년 647,006명(재일본대한민국민단, 「재일동포통계」, <http://www.mindan.org.kr/shokai07.php>)

후 인구의 자연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제시기부터 존재했던 재일동포와 그 자녀들 중 반 이상이 귀화하지 않고 본국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1965년 한일협약 당시에는 이들의 존재가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해 2세까지의 영주자격만이 논의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귀화자 수가 증가하여 다시 자연소멸론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추정을 비롯듯, 최근 귀화자 수는 점차 줄어들어 2011년의 귀화자수는 2003년 귀화자 수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sup>4)</sup> 물론 아주 긴 시점으로 볼 때,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들은 틀림없이 상당기간 매우 의미 있는 사회적 존재일 것이다.

특별영주 재일동포라는 존재는 일제시기의 이주의 역사와 그들의 생활, 해방 후 일본정부의 국적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의 이들에 대한 처우, 일본사회의 편견과 차별 등등 여러 조건들의 표면적인 결과이다. 2000년대 들어 새롭게 집주지역을 만들고 있으며 세계의 다른 소수민족들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뉴커머들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일제시기에 입국한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일컫는 ‘특별영주자’들의 정체성을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재일동포들의 생활조건이 천차만별이듯이, 이들의 ‘정체성’도 실로 다양하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는 ‘민족’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은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한다. 불행하게도 그 민족은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 하나의 ‘국가’와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일동포에게 있어서 정체성 문제는 다른 어떤 소수민족집단보다도 더욱 심각하다. 한국정부와 재일동포 자신들의 운동에 의해 일본사회에서 제도적 차별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지만 진실로 사회적 차별이 없어진 것인가, 아직도 한국적, 조선적 동

4) 2003년 11,778명, 2011년 5,656명(재일본대한민국민단, 「재일동포통계」, <http://www.mindan.org/kr/shokai07.php>)

포들이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국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귀화한 사람들은 민족정체성이 없는 것인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적을 넘어선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은 혹시 허위의식이 아닌가 등등 우리는 재일동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 2. 선행연구

재일동포 연구는 주로 재일동포 학자들이 진행해왔고, 여기에 일본 학자들의 연구가 더해진 정도였다. 한국에서는 뒤늦게 일제강점기 동포 사회의 형성과 해방 직후 사회운동에 관한 역사학적 연구가 축적되기 시작했고,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와 권리투쟁에 관한 연구가 법학, 인류학, 사회학 분야에서 이어졌다.<sup>5)</sup> 재일동포의 정체성 연구는 인류학과 사회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증대하고 있으며,<sup>6)</sup> 학위논문의 주제로도 중요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sup>7)</sup> 뉴커머가 된 한국인 연구자들의 연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sup>8)</sup>

재일정체성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대학교에 유학한 재일동포 학생들의 연구물이다.<sup>9)</sup> 이들이 대학원에서 학위 논문으로

5) 대표적인 연구로는 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이 있다.

6) 대표적인 연구로는 권숙인, 「월경(越境)하는 정체성: 재일한인, 민족, 그리고 '우리」, 『민족발전연구』 제7호, 2002, 111~129쪽; 한영혜, 「일본의 다문화공생 담론과 아이덴티티 재구축」, 『사회와 역사』 71집, 2006, 155~184쪽이 있다.

7) 대표적인 연구로는 윤다인, 「모국수학이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가 있다.

8) 대표적인 연구로는 유혁수, 「재일한국/조선인 사회의 갈등과 과제: 올드커머와 뉴커머 관계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10호, 2014, 308~329쪽이 있다.

9) 대표적인 연구로는 강철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의 노선전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김광섭, 「재일코리안과 일본국적 취득문제: 법·제도과 아이덴티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김요자, 「1990년대 이후 마당운동과 재일한국, 조선인의 아이덴티티」, 서울대

재일동포의 정체성에 관한 주제를 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실제로 재일동포의 정체성에 관하여 이들의 논문만큼 깊이 있는 연구를 보기는 힘들다.

재일동포 정체성의 유형화 시도도 이루어졌다. 재일동포 70여명을 심층면접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공생지향, 조국지향, 개인지향, 귀화지향의 네 그룹으로 유형화한 후쿠오카의 연구<sup>10)</sup>가 재일동포의 정체성 연구에 자주 언급되며, 이후에 나온 연구들도 대체로 이 유형화를 주요 준거로 삼는 듯이 보인다. 서경식은 그와 유사하게 재일한국인의 정체성을 본국지향, 재일지향 및 일본지향으로 구분했다.<sup>11)</sup> 이 분류들은 모두 일본을 기점으로 하여 동화가 되었는가의 단순한 조건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이 분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일한국인들이 대체로 일본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안이한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2)</sup> 1, 2세대 중에 귀국지향이 많았다면 이제 3, 4세쯤 되면 일본에 정주할 생각을 대부분이 할 것이므로 공생지향이 주를 점하지만, 이들에게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도 자라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조국에 대한 생각도 새로운 차원에서 형성되고 이 모든 것을 위해 개인의 능력개발에 최우선적으로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으므로 각 범주들은 상호 배타적이기보다 중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위 분류는 별 의미가 없어진다.

이들의 분류에 국적이 빠져있는 것은 중요한 결점이다. 한국적, 조선

---

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김숙자, 「재일조선인의 정체성과 국적」,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김겨레, 「다문화공생 일본과 은폐되는 식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등이 있다.

10) 福岡正則, 『在日朝鮮人・韓國人—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 中公文書, 1993.

11) 서경식, 「재일조선인의 나아갈 길: '에스닉마이내리티'인가 '네이션'인가」 『창작과 비평』, 102호, 1998, 359~361쪽.

12) 김겨레, 「다문화공생 일본과 은폐되는 식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1쪽.

적. 일본적에 따라 조(本)국지향의 의미도 다를 것이며, 재일지향, 개인지향의 내용도 다를 것이다. 김숙자는 재일동포 3세를 조선적, 한국적, 일본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정체성을 정리했다. 특별영주 재일동포들에 있어 국적의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으나, 역시 아직 국적의 구분은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지점이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하다는 점을 충분히 드러낸 연구이다.<sup>13)</sup> 그러나 단순하게 국적이라는 단일 변수만으로 정체성을 구분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글은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본국과 일본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이 글의 주요 연구방법은 재일동포들에 대한 심층면접이다. 필자는 1989~90년, 2003년, 2007년, 그리고 2016년에 집중적으로 재일동포들을 만났으며, 한국에서도 많은 ‘모국수학’생들과 대화했다. 제네바의 유엔 인권 회의가 열리는 동안 회의에 참석한 재일동포들과 면담했으며, 필자가 참가했던 일본군위안부 관련 운동을 통해 일본과 한국 및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난 재일동포 활동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 글은 또한 그동안에 축적되어온 재일동포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 더해, 잡지나 수기, 회고, 회의에서의 발표문 등에 실린 재일동포들의 자신의 이야기들과 다른 사람들에 의한 기술이나 연구들도 광범위하게 분석에 포함시켰다. 재일동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영화와 연극 및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재일동포의 묘사도 참고했다.

이렇게 직접 또는 간접 조사에 의해 재일동포 정체성 연구에 고려한

---

13) 김숙자, 「재일조선인의 정체성과 국적」,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사람은 60명이 넘는다(한국적 41명, 조선적 19명, 일본적 3명). 그중 좀 더 깊이 대화를 나누어 분석에 자주 인용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표 1〉 재일동포 연구대상자

	성별	연령	국적	직업	면담시기
A	여	60대	한국적	회사원	2016,11
B	남	60대	“	예술인	2016,11
C	남	30대	“	교수	2003,
D	여	60대	“	작가	간접 면담
E	남	70대	“	교수	2016,11(전화)
F	남	70대	“	강사	2016,9
G	여	40대	“	강사	2016,9
H	여	40대	조선적	동포조직 직원	2016,11(이전 수차례)
I	남	30대	조선적	교수	2016,11
J	남	30대	한국적	모국수학생	
K	여	70대	“	학교이사	2016,11
L	남	70대	조선적	동포조직 직원	2016,5 (이전 수차례)
M	여	30대	한국적	모국수학생	
N	남	50대	“	시민활동가	2016,8
O	남	60대	“	회사원	2016,11
P	남	40대	뉴커머	교수	2016,8
Q	남	50대	조선적	교장	2016,8
R	여	40대	한국적	연구자	2016,8
S	남	60대	한국적	기업인	2016,9
T	여	50대	조선적	동포조직 직원	2016,9

## II . 재일동포의 국적변화

### 1. 일본국적 식민지인에서 ‘조선’적 재일동포로

일제강점기부터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지위는 애매했다. 조선인은 일본신민(日本臣民)이 되었지만 일본국적법이 아니라 1909년 제정된 민적법(民籍法)과 1923년 이를 대체한 조선호적령(朝鮮戶籍令)에 소속되

었다. 조선적을 일본국적으로 전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해방 직후 재일동포의 국적은 미국, GHQ, 일본정부의 주로 치안상의 필요에 따라, 한국정부와 북한정부가 설립된 후에는 양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자유선택→이중국적(의미 상)→일본국적→외국인(“조선”)→한국적으로 변경 가능 이라는 어지러운 과정을 겪었다. 간략하게 그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1945년 7월 6일 미국무성은 재일동포에게 자유의사에 따라 국적선택권을 줄 것을 권고했다. (2) 이 방침은 곧 애매한 이중국적을 의미하는 방침으로 바뀌었다. 1945년 8월 6일 미 국무-육군~해군 삼부조정 위원회는 ‘조선 국적법은 그들을 국민으로 간주할 것이다. 일본국적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일본에서의 잔류가 허가된다.’고 했으나, 1945년 9월 26일 ‘일본국적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일본에서의 잔류가 허가된다.’는 문항은 삭제되었다. 1945년 11월 3일 GHQ는 ‘조선인은 (...) 해방국민으로 취급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적국민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하여 애매한 입장을 이어갔다. (3) 곧이어 1945년 11월 5일 GHQ는 ‘조선에 귀국하지 않는 조선인은 적법하게 성립된 한국정부가 그들에 대해 한국국민으로 승인할 때까지 일본국적을 보유한 자로 간주한다.’는 결정을 했다. (4) 1947년 5월 2일 일본정부는 외국인등록령을 발표하고 재일동포를 외국인으로 규정한 후, 국적란에 모두 ‘조선’이라고 기재하도록 했다. 이어 1952년 4월 19일 일본 법무부민사국장통달이 공표되어 ‘조선인은 강화조약 발효일로부터 일본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된다.’고 규정했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조선인은...외국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등록위반자 강제퇴거까지 포함시켰다.

재일동포의 ‘조선’적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외국인등록령 시행규칙(1947.5.2) 별기(別記)등록신청서 양식 내 주의사항 제3호는 “국적란에 대만인 및 조선인은 대만 또는 조선으로 기입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는 남북한에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므로 이때의 ‘조선’이란 한반도를 가리

키는 용어였다.<sup>14)</sup>

## 2.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와 조선적/한국적/일본적으로서의 분화

해방 직후 우여곡절을 거쳐 '조선'인으로 표기되었던 재일동포들은 이후 한국정부와 북한정부, 일본정부의 정책에 따라 많이 '한국적'으로 분화되어 나갔으며, 귀화한 일본국적 집단도 커지고 있다.

1948년 남북한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남한은 국명이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결정되었다. 1950년 1월 6일 대한민국거류민단은 일본정부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시 국적란의 조선을 정식 국호인 대한민국으로 통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sup>15)</sup> 한국정부도 주일 대표부에 같은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일본외무성은 '조선이란 전코리아(全Korea)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국이나 대한민국과 같은 용어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답변했다. 이 문제는 한국이 다시 GHQ에 같은 요청을 하여 다음달 2월에 일본 각의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존의 조선을 한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sup>16)</sup> 이러한 내용은 1965년 10월 26일 일법무성 견해 「외국인등록상의 국적란의 『한국』 또는 『조선』의 기재에 관하여」(日法務省見解「外国人登録上の国籍欄の『韓国』あるいは『朝鮮』の記載について」)에 다시 명기되었다. 즉 “외국인 등록 시 ‘조선’이라는 기재는 재일조선인의 국적 변경의 특수사정상 일본 영토였던 한반도에서 來日한 조선인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어떠한 국적도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7)</sup> 이것은 현재까지도 일본정부와 지자체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14) 정인섭(1996), 134쪽.

15) 「외국인등록 증명서교체에 관한 건의서」

16) 당초 한국에서 다시 조선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곧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정인섭(1996), 134~135쪽.

17) 위의 책, 136쪽.

내용이다. 예컨대 사카이(堺)시 2006년 외국인 통계는 한국 및 조선을 하나의 범주로 만들어 규모를 측정했는데, 통계표 아래에 “조선이란 국적이 아니라 조선반도출신자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을 붙이고 있다.<sup>18)</sup>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존의 ‘조선’을 한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수정하게 됨에 따라 재일동포 국적에 ‘한국적’이 생기기 시작했다. 조선이 국가가 아니라 출신지역을 표시하는 것에 반해, 한국은 국호로 취급함에 따라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재일동포의 정식 국적은 한국뿐으로 되었다. 이후 1965년 협정영주권이 한국적 재일동포에게만 부여됨에 따라 조선에서 한국으로의 국적 이동이 가속되었다. 1991년 한국적과 조선적 동포가 특별영주자로 일원화된 후에도, 한국적으로의 이동 흐름은 지속되었으며, 2000년대 초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한 후 이 흐름은 견잡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을 지지하는 집단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이들은 남북한 정부가 수립된 후 한일관계의 여러 국면에서 한국적으로 바꾸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다.

2015년 말 이전에는 일본정부가 한국적과 조선적을 통합하여 통계를 산출했으므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었다. 1999년에 재일작가 김석범은 조선국적자가 15만 명이라고 추산했으며<sup>19)</sup>, 2009년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에 문의한 결과, 특별영주자 405,571명 중 한국국적자가 36.5

18) 사카이시 보고자료

(市民人権局市民生活部区政課)

年月	総数	韓国及び朝鮮(※)	中国	ブラジル	フィリピン	ペルー	米国	その他
平成18年9月	12,233	5,604	4,066	782	578	216	142	845

※「朝鮮」とは国籍ではなく、朝鮮半島出身者であることを示す。  
(昭和三十九年十月二十六日法務省見解「外国人登録上の国籍欄の『韓国』あるいは『朝鮮』の記載について」)

자료: 大阪府堺市 웹페이지, 「国民保護計画」 p.22 (<http://www.osaka-bousai.net/sakai/PopProtectPlan.html>)

19) 김석범, 「지금 ‘재일 조선인’에게 ‘국적’이란 무엇인가?: 이희성에게 보내는 편지」, 『실천문학』 봄호, 1999, 328쪽.

만~38.5만 명이고 조선적은 약 3~5만 명이라 된다고 추정했다. 2015년 12월부터 일본정부는 외국인 인구 중 한국과 조선을 분리하여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sup>20)</sup> 그에 따르면, 특별영주자 한국국적은 311,463명 조선적은 33,281명이었다.<sup>21)</sup> 2016년에는 303,337명, 31,826명이었다. 다음의 표에서 좀더 정확한 수치를 볼 수 있다.

〈표 2〉 재일동포 특별영주자 수

		2015	2016
한국	특별영주자	311,463	303,337
	영주자	66,326	68,033
	정주자	7,413	7,348
	기타	72,570	74,378
	총계	457,772	453,096
조선	특별영주자	33,281	31,826
	영주자	477	468
	정주자	123	114
	기타	58	53
	총계	33,939	32,461

\* 재류외국인: 중장기 재류자(여행자나 단기 재류자 등 제외) 및 특별영주자.

\*\* 출처: 일본 법무성 재류외국인통계(구등록외국인통계)통계표(2015~2016 각년) [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

\*\*\* 2016년 12월 말 기준(2017년 3월 31일자 공표)

한편 일본에서 제도적 차별이 완화되고 일본국적 취득 절차가 간소화되는 과정에서의 귀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본정부가 1985년 여성 차별철폐조약 가입한 이후인 1899년에 제정되었던 일본국적법은 새롭게 개정되었다. 개정된 일본국적법은 종래 부계혈통주의를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변경하여,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일본국민이면 그 사이에서 출생한

20) 2016년에 인터뷰한 한 공무원은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에 계속 주장하여 한국과 조선을 국적란에서 분리하게 되었다고 자랑했다. 이에 대한 공식적 확인은 할 수 없었다.

21) 일법무성, 「재류외국인통계(구등록외국인통계)통계표, [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

자는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정부에 의한 시혜적인 국적승인의 관행이 바뀌어, 1990년대에 들어서는 신변조사가 거의 없이 국적 취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5년 국적법 개정에 따라 호적법도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는 귀화하면서 일본명 대신 민족명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즉 외국계 姓, 외국식 이름이 공인되어, 이전의 일본식 성으로 창씨개명을 해야 국적이 승인되었던 제도가 사라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동화가 아니라 권리로서의 일본국적취득론이 재일동포들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일본국적취득이 더욱 확대되었다. 1991년 구식민지출신자를 ‘특별영주자’라는 법적인 범주로 묶은 후, 2001년 4월 “특별영주자 등의 국적취득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공표되었다. 이것은 “영주 외국인 지방 참정권부여 법안”과 연동되어 찬반양론이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권리로서의 일본국적 취득론의 확대를 촉진시키고 있는

〈표 3〉 재일동포의 일본국적취득

연도	귀화수	연도	귀화수	연도	귀화수	연도	귀화수	연도	귀화수
1952	232	1965	3,438	1978	5,362	1991	5,665	2004	11,031
1953	1,326	1966	3,816	1979	4,701	1992	7,244	2005	9,689
1954	2,435	1967	3,391	1980	5,987	1993	7,697	2006	8,531
1955	2,434	1968	3,194	1981	6,829	1994	8,244	2007	8,546
1956	2,290	1969	1,889	1982	6,521	1995	10,327	2008	7,412
1957	2,737	1970	4,646	1983	5,532	1996	9,898	2009	7,637
1958	2,246	1971	2,874	1984	4,608	1997	9,678	2010	6,668
1959	2,737	1972	4,983	1985	5,040	1998	9,561	2011	5,656
1960	3,763	1973	5,769	1986	5,110	1999	10,059	2012	5,581
1961	2,710	1974	3,973	1987	4,882	2000	9,842	2013	4,331
1962	3,222	1975	6,323	1988	4,595	2001	10,295	2014	4,744
1963	3,558	1976	3,951	1989	4,759	2002	9,188	2015	
1964	4,632	1977	4,261	1990	5,216	2003	11,778	합계	355,274

자료: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재일동포통계, 일본어판」, <http://www.mindan.org/shokai/toukei.html>

것은 사실이다.<sup>22)</sup>

이에 따라 귀화가 늘어나서 1995~2004년 10년간 매년 1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점차 가라앉아 2010년대에 5,000명 정도가 매년 귀화하고 있다.

### Ⅲ . 민족정체성과 국적

#### 1. 재일동포 민족정체성의 분류와 국적

국적이 늘 정확하게 이들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이 국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같은 국적 내에도 서로 다른 정체성이 공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복잡다단한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아직도 강고하게 이들 간에 선을 긋고 있는 국적을 일차적 범주로 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왜 조선적을 고수하고 있는지, 조선적으로부터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왜 한국적을 택하게 되었는지는 이들의 민족정체성과 무관하게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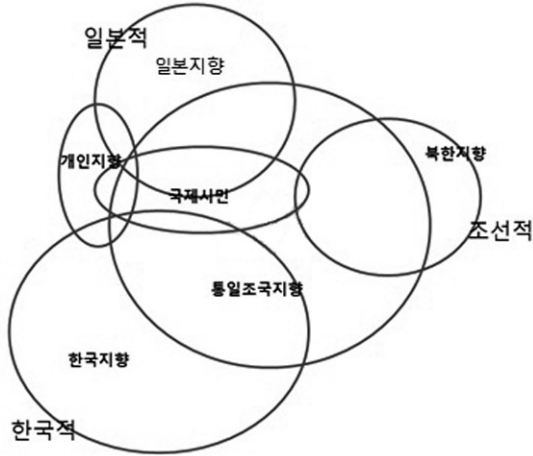
이 글은 특별영주 재일동포를 국적에 따라 조선적, 한국적, 일본국적 취득자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다시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갖는 몇 개의 집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적에 따라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범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적이 여전히 정체성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필자의 발견에 따른 것이며, 원의 크기는 규모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정밀

---

22) 일본국적취득에 관해서는 김광섭, 「재일코리아인과 일본국적 취득문제: 법·제도와의 아이덴티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를 참조할 것.

한 규모를 나타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둔다.

〈그림 1〉 특별영주 재일동포의 정체성



## 2. 재일동포 공통의 경험과 인식

조선적, 한국적, 일본적에 상관없이 현재 재일동포들이 갖는 공통의 경험과 인식이 있다. 1970년대부터 확실하게 형성되기 시작한 귀국의지의 포기 그리고 세대, 계층에 따라 다소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본사회에서의 차별 경험이 그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은 조선적, 한국적, 일본적 재일동포 모두가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매우 절실한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1) 일본정주

이미 1970년대부터 재일동포 대부분이 귀국의지를 접고 일본에 정주

하기 시작했다. 귀국하기에 이미 늦었고, 남북한 모두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불안했기 때문이다. 북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1984년이지만 1970년대 초반에 거의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sup>23)</sup> A에 따르면, 조선학교도 1970년대부터 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 동포들의 일본정주를 전제로 교과서를 개편했다고 한다. 아직도 한국적, 조선적을 갖고 있는 동포들도 이제 일본정주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들은 통일이 되어도 일본에 살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에서의 생활이 편리한 것은 공통의 생각인 듯하며, 수많은 차별경험에도 불구하고, 한국, 북한보다 일본정부를 더 신뢰하는 경향도 보인다. A는 외국에 나가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남북한 정부보다 일본정부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국인이라는 뿌리는 잊지 않겠지만, 이제 제일조선인이란 존재는 일본의 일부분이라고 말한다.

## 2) 차별경험

대부분의 제일동포는 직접적, 개인적인 차별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겪지 않은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다른 동포가 겪는 차별을 보았다고 말했다. 조선적 동포에 관한 더욱 심한 차별의 이야기도 적지 않

23) <표> 제일동포 북송

년도	회수	인원	세대	년도	회수	인원	세대	년도	회수	인원	세대
1959	3	2,942	781	1968	중 단	-	-	1977	2	180	103
1960	48	49,036	12,460	1969		-	-	1978	1	150	52
1961	34	22,801	6,696	1970		-	-	1979	2	126	
1962	16	3,497	1,402	1971		7	1,318	485	1980	1	40
1963	12	2,567	1,157	1972	4	1,002	589	1981	1	38	
1964	8	1,822	815	1973	3	704	328	1982	1	26	
1965	11	2,255	1,046	1974	3	479	245	1983	0	0	
1966	12	1,860	855	1975	3	379	199	1984	1	30	
1967	11	1,831	873	1976	2	256	148	1985	0	0	
								합계	186	93,339	

자료: 제일본대한민국민단, 「제일동포통계」, <http://www.mindan.org/kr/shokai07.php>

다. 이에 관한 수많은 기록과 소설, 영화가 있지만, 필자가 최근에 행한 면담의 결과를 몇 개만 적어본다.

도쿄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노래를 하는 B는 오사가 출신 동포 3세이다. 그는 등록금이 있는 조선학교에 가지 못하고 무료인 일본소학교에 들어갔는데 일본선생님의 끔찍한 차별을 받고 싸움꾼이 되었다. 그는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본선생님들이 조선학생을 심하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그가 자란 곳은 가난하고 위험한 환경이었다. 그곳에서는 어느 날 옆집 형이 파칭코에서 싸우다 칼 맞아 죽었다거나, 또 다른 누나는 야쿠자의 여자가 되었다는 등의 이야기가 평상의 언어처럼 들렸다. 홍수에 강이 범람하면 부모님은 축축한 바닥에서 주무시고 아이들만 다다미 위로 올라가 자게 했다. 아버지는 기관지가 아팠는데 약만 먹으면 되는 상황에서 마루타처럼 수술을 받았는데, 그 장면이 어른이 된 후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다. 그는 중학교에서 음악을 배우면서 싱어송 라이터가 되었는데, 그의 노래는 어릴 적 그 무참한 환경이 배경이 되고 있다.

A는 비교적 유복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직접적인 차별을 당한 적은 없었지만, 조선인이라고 이지메를 당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았다고 말했다. 재일동포 내에도 계층 차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재일동포 모국수학생인 김겨레는 제도적 차별이 완화된 2000년대 일본사회의 대놓고 말하기 힘든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해 진지하게 말한다. 그는 학교에서 국가 제창을 할 때, 기미가요가 내포하는 은밀한 압력을 감각적인 공포로 감지한다고 말하며,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善紀) 만화나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하는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을 지킬 곳은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다른 한편 학교에서 양심적인 교사들의 운동으로 이룩한 본명 부르거나 민족학급에서도 타자화의 억압을 느낀다고 말한다. “식민지 이후에 대두한 양심적인 코드는 부조리함을 표현할 언어를 빼앗아간다”는 그의 독백은 재일동포의 복잡한 내면의 깊이를 가늠하

기도 힘들게 한다.<sup>24)</sup>

### 3) 자신을 숨긴 경험

A는 중학교까지 일본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이 ‘조선인’임을 숨기고 살았다. 옆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노골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조선인임이 밝혀지면 똑같이 차별 당하겠다고 생각해서였다. 또 당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위생적이지도 않고 힘들게 살고 계셔서 조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조선을 멀리해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다. 싫어도 나는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조선학교에 가게 되었다. 1970년대 조선학교는 체계도 없고 교원도 없고, 조선학교를 통괄하는 제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총련)도 엉망이었으나,<sup>25)</sup> 그는 거기서 비로소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F도 부모님이 기타큐슈의 야하타 탄광으로 강제연행되어 왔는데, 어릴 적 왜 조선사람으로 태어났나는 원망하고 자신감 없고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도 어머니 덕분에 조선중학교에 들어가서 차별 없는 학교에서 우리말, 우리 역사를 배우면서 민족성을 찾았고, 어깨를 펴고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

B는 노래하는 사이사이에 말한다. “어머니는 한국어를 못 쓰게 했고 한국음식도 안 해주셨다. 한국, 조선 모두 싫고 우리가 부끄러운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자랐다. 차별보다도 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더 부끄럽고 억울하다. 지금 동포 뿐 아니라 세계의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노래 짓고 하는 사람이 된 것은 기적과 같다.”

---

24) 김겨레, 「다문화공생 일본과 은폐되는 식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9, 32~37쪽.

25) ‘김병식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총련 조직 내의 부패·폭력 사건.

#### 4) 조국의 통일, 민주화 염원

1970년대 모국수학을 위해 ○○대학에 재학하다가 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5년 이상을 옥살이 한 ○모 씨는 일본으로 돌아가 회사에 취직하여 그런대로 편안하게 살고 있다. 필자가 한국을 생각하면 몸서리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그의 답은 가슴 저린 것이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조국이 분단되지 않고 풍요롭고 민주화되었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라도 한국이 있다는 것은 내게 더할 수 없는 행복이다. 내게 조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다.” F는 분단의 아픔 때문에 사회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3, 4세는 그 아픔을 몰라요.” 그는 일본초등학교에서 민족수업을 하면서 남북분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통일지도를 사용하며,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한다. “나의 고향은 조선반도. 전쟁으로 분단되었어요. 전쟁은 안 돼요. 이웃을 침략하는 것은 안 돼요. 사이 좋게 지내요.”

민족학교를 촬영한 한 필름은 학생들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는 조국은 둘이었네. 슬픈 역사가 이 땅을 갈라도 마음은 서로 찾았네 불렀네”라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며, 통일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한 초등학생은 “한국하고 조선은 같으니까 나는 한국사람이고 조선사람이야”라고 말한다.<sup>26)</sup>

이렇게 존재하는 조국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재일동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통일이 염원인 것은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동포 조직의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총련은 일찍부터 한국적/조선적을 관계하지 않으며, 민단도 2005년부터 회원자격을 한국적자에서 조선반도 출신자로 바꾸었다. 2006년 5월 17일 총련과 민단이 화해 화합

26) SBS스페셜, 「나는 가요. 도쿄제2초급학교, <https://www.youtube.com/watch?v=PHtlbfKI1kA>

을 시도하고 8·15기념축제 공동 개최 등에 합의했을 때, 당시 재일동포 99%가 찬성했다는 사실<sup>27)</sup>은 이들의 통일 염원을 응변하는 것이다.

윤건차는 900페이지가 넘는(한국어판) 장대한 저서의 결론으로 “통일은 적어도 불가피한 통과점이며 일본과 조선이 재출발하는 데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고 말했다.<sup>28)</sup> 재일작가 박경남은 아버지의 소원이 “일본, 한국, 북한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가족이 모두 평안하기를..., 한반도가 하나가 되어 평화의 시대가 실현되기를...”이었다고 말한다.<sup>29)</sup>

### 3. 재일동포 국적의 배경

재일동포에게 있어서 한국적, 조선적, 일본적이라는 국적을 결정하게 하는 조건이나 그 배경들에 관하여 다음의 몇 가지 양상들을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은 이들에게 국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늠하게 한다.

#### 1) 한 가족에 한국적, 조선적, 일본적이 공존

재일동포의 존재에서 국적은 어떤 결정적이거나 당연한 조건이라기 보다는 상황적인 변수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한 가족에서 몇 개의 국적들이 공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F는 어머니와 함께 기타큐슈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민족수업을 하기 시작하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지금까지 1,000회 넘게 계속하고 있다. 그에게는 7남매가 있는데 누나 한 분과 본인만 한국적이고, 다른 형제들과 그 가족은 모두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1989년 한국적으로 바꾸어, 한국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고 그의 아들은 광주에서 음식을 배워 기타큐슈지역에서 한식당을 경영

27) 이 합의는 곧 이은 7월 5일의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로 백지화되었다. 이범준,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북콤마, 2015, 299~305쪽 참조.

28) 윤건차, 『자이니치의 정신사』, 박진우 역, 한겨레출판, 2016, 874쪽.

29) 박경남, 『우린 행복하려고 태어난거야』, 김경원 역, 북뽕, 2016, 83쪽.

하고 있다. G 가족의 국적 구성은 더욱 복잡하다. 그는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었다. 동생 둘은 일본적을 가지고, 과거에는 한국인임을 숨기고 살았다. 그는 일본학교를 다녔지만, 일본 선생님이 만든 조선문화연구회에서 민족문화를 만나고, 총련 청년동맹이 주관하는 여름학교(summer school)에서 민족의식이 확고해졌다. 대학 입학할 때는 본명을 쓰기에 이르렀으며, 남학과 북한을 모두 방문했다. 2006년 후쿠오카에 돌아와 F와 만나게 되고 현재까지 민족수업을 같이 하고 있다. 그는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 받은 국적을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조국의 역사를 생각할 때 조선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고 남편을 조선적 동포로 선택했다. 남동생 둘은 모두 일본적이고 큰아버지는 한국적이다.

A는 카톨릭 집안에 태어난 동포 3세로서 조부모와 부모와 같이 한국적을 갖게 되었으나, 조선고급학교, 조선대학교를 다니면서 민족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조선신보사에서 일하면서 조선적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시부모님도 조선적이다. 그는 총련 분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분회에 조선적, 한국적, 일본적 동포들이 격의 없이 어울린다. 그의 사촌오빠는 북송대열에 끼어 현재 북한에서 살고 있다. 그는 한국의 동국대학교 사회학 대학원에 입학해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일본에 돌아갔으며 지금도 한국을 자주 방문한다. 그는 또 북한도 방문하여 사촌오빠를 만났으며, 한번은 시아버지와 함께 북한에 가서 사촌오빠, 시아버지의 제자들을 함께 만난 적도 있다. 또 그의 사촌언니는 민단부인회에서 활동한다.

H의 부모님은 제사 모시러 고향에 가야해서 한국적으로 바꾸었지만, 자신은 그대로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다. 남동생은 사업하기 위해서 일본적으로 바꾸었고, 또 한 명의 남동생은 조선적이다. 그는 자신을 북한 지지자보다는 '조선반도지향'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남편은 조선적을 가지

고 있지만 자신과는 다르게 실제로 북한지향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D는 한국적으로 한국 방문도 여러 번 한 사람인데, 조부모와 부모님은 모두 조선적이다.

도쿄 제2초급학교는 조선적 학생이 33명, 한국적 25명, 일본적 1명이며, 학생들의 아버지는 조선적이 23명, 한국적이 20명이고 어머니는 조선적이 27명 한국적이 15명, 일본적 1명이다. 교장은 부모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면서, 아무 상관없다고 말한다.<sup>30)</sup>

그야말로 재일동포들은 한 가족 내에 세 개의 국적이 아무 문제없이 그러나 많은 사연을 품은 채 공존하고 있다.

## 2) 국적에 상관없는 교류

그들은 국적보다 커뮤니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바꾼 사람들도 그동안의 커뮤니티 교류를 별다른 변화 없이 이어간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A는 총련 분회에서 위로를 얻으며 살고 있는데, 그 분회에는 조선적, 한국적, 일본적 동포들이 같이 활동한다. 도쿄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노래하는 B는 오사카의 어린 시절을 그리며 “여기가 일본인가, 조선인가. 조선인가, 한국인가”라는 노랫말을 자신이 지은 음율에 실어 부른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K는 한국적인데 조선초급학교 이사를 하면서 조선적 학생과 교사, 이사들과 같이 생활한다.

뿐만 아니다. 총련이 경영하는 조선학교에 조선적 뿐 아니라 한반도에 뿌리를 갖고 있는 한국적, 일본적 동포학생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다니고 있다.<sup>31)</sup> 민단과 총련은 국적에 상관없이 동포 회원을 받는다. A에 따르

30) SBS스페셜, 「나는 가요. 도쿄제2초급학교」, <https://www.youtube.com/watch?v=PHtlbfK11kA>

31) 정진성, 「재일동포 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 『일본비평』, 7호, 2012 참조.

면,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라고 하는 총련 산하의 상공인들 모임은 조선학교 지원의 중요 회원인데, 그 안에 한국적, 일본적 동포가 대부분이다.

### 3)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정해지는 국적

누구나 국적을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다. 이 만고의 진리 앞에 유독 재일동포들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정해진 국적에 대해 문제의식을 품는다. B는 “나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오사카에서 한국사람으로 태어났다. 왜 한국사람인지도 모르고 심한 차별을 받으며 살았다.”고 말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G는 북한에 대해 깊은 일체감을 갖고 있지만, 한국적으로 태어났으므로 국적은 일부러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산다고 말한다. 재일에 관해 많은 글을 남긴 E는 1990년대 이회성, 김석범 등 재일 작가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조선적 ‘무국적자’ 존재 논쟁에 대해서,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한국적이므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도쿄제2조선초급학교 다큐멘터리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사촌 ○○는 조선사람이고, 나는 한국사람이라...한국하고 조선은 같은 나라니까 나는 한국사람이고 조선사람이야.”

### 4) 국적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

재일동포들에 있어 이제 국적은 별다른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한 가족에도 여러 국적이 존재하고, 또 서로 어울려 생활하는 데 국적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술할 바와 같이 국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적이며 한국과 조선을 여러 번 방문했고 총련활동을 하는 A는 “이제 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국적은 상관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도 “조선적을 한국적으로 바꾸는 것은 괜찮지만, 일본적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B, E, K 등)이 적지 않다. 조선적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북한만을 조국이라 생각하며 온갖 불편을 감수하며 조선적을 유지하는 사람(T) 등, 국적에 대한 생각들은 동포 사이에 일률적이지 않다.

## IV. 조선적 재일동포의 정체성

앞서 본대로 해방 후 일본정부에 의해 국적이 '조선'으로 표기된 후, 지금까지 한국적이거나 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포가 3만여 명이 넘는다. 간혹 한국적이거나 일본적에서 조선적으로 바꾼 사람들도 있으나 극히 소수이다. 후술할 바와 같이 북일관계 악화로 인하여 또는 해외여행 등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일부러' 일본국적 취득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한국적으로 국적을 바꿀 필요나 여유가 없던 사람, 식민지배와 분단, 차별의 역사적 상징으로서 조선적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지하게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까지 조선적 내부에도 여러 층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 사람들을 크게 통일조국지향과 북한지향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필자가 조사한 19명의 조선적 동포 중 8명은 통일조국지향, 11명은 북한지향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물론 두 지향은 명확히 상호배타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상당부분 중첩된다.

### 1. 통일조국지향

재일작가 김석범은 통일된 조국을 지향하는 일단의 사람들을 “조선” 국적의 ‘북’공화국 국적화에 따라 ‘북’쪽으로 귀속하지 않고 그리고 ‘남’으로도 귀속하지 않은 ‘무국적’의 소수자”라고 정의했다. 그는 “남, 북 어디에서도 태어나지 않은 채 지니게 되는 ‘조선’ 국적은 통일이 지상과제인

한에 있어서는 분단에 대한 반대의 위치에 있다…앞으로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따라…십 수만의 조선 국적자 중 ‘자동적’으로 ‘북’국적을 취득하게 될 사람들과 ‘북’국적도 취득하지 않으려는 ‘무국적’ 재일조선인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명확한 윤곽을 갖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다.<sup>32)</sup> 이 사람들은 국적이 민족 내에 벽을 만든다면 국적을 초월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자이다. 이들은 일본에서 조선적의 존재는 남북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으며, 한국정부가 조선적을 가지고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33)</sup> 민주화된 정부에서도 조선국적 동포의 입국을 거부하는 현실에서도, 한국적으로의 이동은 안이한 선택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조선’을 통일 조국으로 믿는 이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 문제는 현재 ‘조선’이 현실적으로 북한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며, 특히 총련과 북한정부가 조선을 국호로 인정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는 가운데, 이러한 입장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통일조국지향의 조선적 재일동포의 존재는, 1965년 협정영주권이 한국 국적자에게만 부여된 이래 늘어나는 조선적으로부터 한국적으로의 이동이, 한국에서 군사독재가 끝나고 민주화와 경제변영이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크게 증대하면서 드러났다. 1990년대 후반 김석범, 이회성, 서경식 등의 재일지식인들 사이의 변민과 논쟁이 한국사회에 소개되면서, 이 소위 ‘무국적자’ 존재의 역사적 의미가 깊이 성찰되었다. 특히 2010년대 보수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선적 동포의 한국입국이 전면적으로 거부되었으며, 이

32) 김석범, 「지금 ‘재일 조선인’에게 ‘국적’이란 무엇인가?: 이회성에게 보내는 편지」, 『실천문학』, 봄호, 1999, pp.319-328.

33) ○○ 씨는 두 번째 입국 시 국적변경을 요구 받았다. “나는 북한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조선적’을 바꿔야 할 이유도 없다.” 강성현, 「국적의 정치와 조선적 재일」, 숙명여자대학교 편, 『Post-colonial 시대에 있어서 재일조선인』, 숙명여자대학교, 2002 참조.

를 둘러싸고 한국의 시민사회가 법적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sup>34)</sup>

의식적으로 통일조국을 생각하며 조선적을 유지하는 사람 외에, 한국방문이나 외국여행을 위해 불편한 조선적을 한국적으로 바꿀 계기가 없던 조선적 동포들 중에도 자신의 조국을 구태여 북한, 또는 남한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그저 ‘조선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많다.

가족 중 누군가 북송선을 타고 북한에 거주하게 된 사람이 있어서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하다. D의 아버지는 자신의 부모와 동생이 북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한국적을 취득하면 북한에서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을 걱정하여 조선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 2. 북한지향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 통계에서 국적 란의 조선은 북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한국적이나 일본국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조선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조선을 북한과 일치시킨다. 이들을 총련계(Chongryun Korean)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집단 내에도 상이한 여러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북한과 일체감이 강한 집단과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지만 비판의식도 동시에 갖고 있는 집단이 구별된다. 한국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고 일본국적 취득에 대해서도 서로 매우 상이한 생각들이 상존한다. 이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었던 사회적 조건들이 변하기 때문이다. 위 두 집단을 위축시키며 한국적으로 국적을 바꾸는 잠재적 집단이 또한 존재한다. 북한의 침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북일 관계 악화로 일본의 민족학교와 조선적 동포에 대한 처우가 폭력적으로

34) 박유하의 문제적인 저서인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뿌리와이파리, 2015를 예리하게 비판하여 한국에도 독자층이 두터운 정영환 교수의 경우가 이 투쟁에 동참하였다.

되면서, 한국적으로서의 이동도 가속화되고 있다.

### 1) 성찰적 북한지향

성찰적 북한지향에 해당하는 이들은 조선적을 유지하고, 북한을 자신의 조국이라고 생각하며 애정과 충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 定住의식이 확실하고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비판적 견해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한국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필자가 만나본 대부분의 조선적 사람들이 이 집단에 속한다.

총련 간부 중에서도 3, 4세로 오면, 1, 2세와 같이 북한과 일체화하는 정체성은 바뀐다. 이에 대해서는 오사카 총련 지부의 재일동포 3세로서 20대 후반의 남녀 활동가 6명을 조사한 강철수의 실증적 연구가 있다.<sup>35)</sup> 수많은 동포들이 총련을 이탈하는 가운데, 총련에 활동하기 위해 들어온 이들은 북한지향 정체성을 가졌음에 틀림없지만, 1, 2세들과 확연히 다른 점은, 총련이 대부분의 재일동포들이 더 이상 귀국지향이 없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본에서 정주하는 재일동포의 현실을 직시하여 일본에서의 생활을 돕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와 아울러 다른 여러 점에서도 폐쇄적인 총련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싶어 한다.

총련 조직은 아니지만 총련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거나 민족학교 교장이나 교사를 하는 사람들도 북한과는 심리적 거리를 두고 일본에서의 생활에 맞추어 의식이 개방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필자가 1990년대 초부터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위한 운동에 참여하면서 만난 조선적 활동가 L씨는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조선학교 교사를 하다가 일제시기 강제연행문제 조사에 전력을 쏟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북한은 물

---

35) 강철수(2008).

론 서울까지도 수차례 방문하고 유엔을 비롯한 세계사회와 교류하고 일본 국회의원과도 협력하면서 맹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부인과 자녀들도 조선적을 가지고 조선학교에 다녔으며, 그는 총련 간부들과도 긴밀하게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그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필자의 비판에 대해 늘 미소로 답을 했으며, 총련이 현실에 맞추어 방침을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실히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다만 그의 관심은 일제의 조선인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규명과 그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을 추구하는 데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정부와도 이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는 최근 진전되고 있는 조선적으로부터 한국적으로 국적을 바꾸는 경향에 대하여 하나의 조국이므로 괜찮다고 말하는 자신감을 나타냈으며, 그러나 앞으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조선적 재일한국인의 존재가 남아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필자가 2003년에 방문했던 오사카 生野朝鮮初級學校의 교장선생님은 왜 어려운 가운데 이 학교를 계속 운영하는가라는 질문에, “역사적으로 국가를 잃고, 민족을 잃고, 인간으로 일본에 사는 데 있어서 민족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며, 이것을 지키는 데 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조선학교 교장인 Q는 조선적 동포 3세이며 북한을 자주 방문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나고 자란 우리들이 북한의 실상에 찬동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학생들에게도 김일성 사상은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재일 동포 역사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필자가 2003년에 만난 4-5명의 조선대학교 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애착과 충성을 드러냈다. 이들 중 한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2002년 동경에서 열린 조선적과 한국적, 일본적 재일동포, 뉴커머를 포함한 ‘재일’의 모임에서 만난 한 조선적 재일동포는 통일이 되면 조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언어와 국가를 알아야만 세계 속에서의 자신을 알 수 있다며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 조총련 조직이 이러한 민족적 정체성을 키우고 유지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데 이의가 없으며 감사와 충성의 느낌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조국지향을 가지면서도 일본사회와 한국, 민단계 재일한국인들에 대하여 점차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많은 총련계 재일동포들이 조국 귀환의 의지를 접고 일본에의 정주를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했으며, 총련계와 민단계의 재일동포들이 함께 기획, 참여하는 문화 및 권익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필자가 만난 조선대학생들은 모두 한국 드라마, 소설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방문, 한국학생들과의 교류도 빈번하게 하고 있으며 한국학생과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한다. 서울에 친구가 많으며 필자에게 친근감을 나타낸 한 조선대 남학생은 홋카이도에서 열린 한국-일본 대학생 합동 유골 발굴 작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한일 간 교류에 자원활동으로 통역을 한 학생도 상당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지나친 폐쇄성으로부터 벗어나야한다는 불안감을 표출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 앞서 언급한 필자가 2002년에 만난 한 조선대 여학생은 총련계 재일한국인의 한국과의 교류가 증대되는 것을 보면서, 나만 단절되는 아닌가하는 초조감이 인다고 말했다. 조선대 졸업생인 H는 일본에서 민족학교만을 다녔기 때문에 일본사회에 대해 너무 모르고 일본인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어 단절된 느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국에 유학하여 이제는 한국유학생 친구가 많게 되었다고 말했다. 필자가 2003년에 방문한 조총련 조직에 속하여 총련계 사람들과의

교류만을 주로 해온 동경근교의 부녀회 사람들은 한국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아는가, 자신들이 민족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이유를 아는가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이것은 여러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 총련계 재일동포의 개방성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재일동포의 정체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재일동포 중 외국으로 유학하는 사람들을 일본에서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개인지향적 정체성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라고 분석했지만(福岡 등),<sup>36)</sup> 필자는 외국으로 나와 더욱 깊이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성찰하는 경우를 보았다. 앞서 여러 번 언급한 H는 필자가 2002년도 유엔 인권소위원회<sup>37)</sup>에 교체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했을 때, 당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유학하고 있다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팍스로마나(Pax Romana)라는 국제 NGO의 인턴으로 인권소위원회를 방문했다. 그 후 지금까지도 간간히 연락을 이어가고 있으며 필자가 일본을 방문하면 거의 빠짐없이 만나고 있다. 재일동포 2세인 H 씨는 민족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일본학교를 다니면서 일본 학생이나 교사로 부터 받았을지 모를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은 것을 큰 다행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섬처럼 존재하는 조선적 재일동포 사회의 고립을 걱정한다. 자신도 그래서 영국 유학을 선택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특히 한국유학생 친구들을 많이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여전히 일본인들의 사회 속으로 들어가기는 힘든 듯이 보였다. 유학 후 일본으로 돌아온 H는 총련계 인권단체에서 재일동포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경제 위기와 핵문제, 납치 사건 등에 대해 심각하게 실망하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조국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한다.

36) 福岡正則, 『在日朝鮮人・韓國人—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 中公文書, 1993.

37) United Nations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년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개혁에 따라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로 개혁됨.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일 조선인들의 지난 역사를 보면 북과 여러 인연을 맺으며 살아왔고 나는 고교까지 조선학교를 다녔어요. 지금도 총련계 인권단체의 이사로 있어요. 내가 국가적인 정체성을 꼭 북에만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왔고 활동을 했는데 이를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sup>38)</sup>

북한 귀국지향에 비해 훨씬 복잡한 인식을 가지면서도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는 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열쇠는 결국 민족학교에 있다. 이들 대부분은 민족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다. 일본에서 자칫 길을 잃을 수도 있었던 자신들의 삶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준 것은 민족학교이고, 이 학교가 가능했던 것은 1950~70년대 북한정부의 지원 때문이었다고 이들은 생각한다.

## 2) 북한과 일체화

북한을 유일한 조국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북한 국민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북한 지향으로 맞추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은 총련의 재일동포 1, 2세 간부들이다. 총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조선대학교까지 민족학교를 졸업하여 민족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이다. 총련 1세 간부들은 총련을 북한의 해외공민단체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1950년대 말로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9만 3천여 명을 북한으로 귀국시킨 총련 활동가와 귀국한 사람들 대부분이 북한지향/귀국지향의 사람들이다. 총련은 출발부터 북한이라는 단일한 체제의 일부로서, 북한의 당대회에 총련 대표가 축하연설을 하기도 했으며, 총련의장단이 1967년 북한 최고인민

---

38) 한겨레일보, 「조선적도 한국 입국도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20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51112.html#csidxb05115ac062c3f1812d56c67ebc84f8>

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참석하기 시작한 후, 매기마다 총련 간부들 중 7명가량이 선출되어 참석하고 있다.<sup>39)</sup> 이렇게 조직 자체가 북한과 일체화되어 있으므로 북한과 한국, 재일동포 의식과 북일관계 등 여러 사회적 조건들이 크게 변화된 속에서도 총련 1세 간부들의 조국지향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총련의 방침 자체도 변화가 매우 느린 것으로 보인다. 총련의 내부 변화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강철수에 따르면, 젊은 활동가들이 총련을 변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실망하고 총련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sup>40)</sup> 총련의 핵심 간부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아서 총련의 조국지향노선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를 느끼는 것이다.

T는 조선적 재일동포 2세대. 오사카에 살았는데 가난해서 돈이 드는 조선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본학교에 다니면서 차별을 받았다. 방학에 조선대학,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이 와서 하기학교를 열고 분회 사무실에서 우리말, 우리 역사를 가르쳤다. 얼마간 같이 생활하면서 민족정체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대학에 가서는 재일본조선인유학생동맹(총련계 대학생 조직 이하, 유학동) 활동을 했으며, 졸업 후 조선신보사(총련신문)에 취직해서 남편을 만났다. 그는 '조선적'은 인간의 자존심이다. 생활의 불편을 조금만 감수하면 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다소 복잡하지만, 공화국(북한) 여권을 받아 독일을 왕래했다. 아이는 조선학교에 보내는데, 일본학교를 다녔던 자신과 달리 민족교육으로 인해 확고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며 자신도 배우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군사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북한정부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며 최근의 조선고교무상화 제외에 대한 항의운동에도 열심이다. T의

39) 진희관, 「북한과 조총련의 관계 변화 및 민단-조총련 관계개선 방안 모색」, 『통일문제연구』 제15권 1호, 2003, 135~136쪽.

40) 강철수, 「재일조선인총련합회의 노선전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남동생도 조선적을 유지하면서 대학교수를 하며 해외여행을 수없이 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아직도 분단이 고착화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곳의 총련계 사람들이 이런 정체성을 고수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2003년 필자가 교토 東9條 근처의 민단계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교회에는 총련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에 북한과 총련에 대한 비판이 상당 부분 있었다. 이러한 재일동포 커뮤니티의 분단체제는 총련계 동포들의 북한지향 정체성을 짐작하게 했다.

결국 북한지향 정체성의 주요인은 남북한 분단의 냉전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상황이 크게 바뀐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아직 이러한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필자는 조사한 19명의 조선적 동포 중 11명을 이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 V. 한국적 재일동포의 정체성

앞서 언급한대로 1947년 재일동포들은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국적란에 ‘조선’이라고 기재하게 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한일 정부 간 타협에 의하여 한국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문이 열렸고, 북한과 일본의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아 ‘조선’이 기호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에서 한국으로의 국적 이동이 가속되었다. 2002년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한 후 이 흐름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뉴커머인 일반 영주자까지 포함하여 재일동포의 거의 대다수가 한국적인데, 조선적 동포와 마찬가지로 한국적 재일동포의 정체성도 매우 복잡하다. 필자가 조사한 41명의 한국적 동포 중 반 정도(19명)가 통일조국 지향으로 판단되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해외여행이나 일본에서의 현

실적 필요성에 따라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바꾸었으나 여전히 부모나 조부모가 떠난 통일조국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통일을 염원하며 조선적과 함께하는 커뮤니티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 1. 통일조국 지향

한국적을 가진 재일동포들 중에는 통일조국을 지향하는 조선적 동포와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국적은 한국이지만, 북한도 나의 조국이다. 내게는 조국이 두 개다. 통일되어 하나의 조국을 가지고 싶다. 적어도 남북한 관계가 좋아져서 남한과 북한을 모두 자유롭게 방문하고 싶다...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조선학교와 총련까지도 한국적 동포에게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대체로 다음의 두 개 범주의 사람들이다. 첫째는 부모가 한국적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한국적을 갖게 되었으나 후에 민족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들이며, 두 번째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집단으로 생활의 편리를 위해 한국적으로 바꾸었지만 커뮤니티의 일상적 인간관계와 생활은 변하지 않고 생각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다.<sup>41)</sup> 조선적 동포들이 조선적이라는 국적(또는 무국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반해, 통일 지향의 한국적 동포들은 국적이란 생활의 편리일 뿐, 3, 4, 5세에 이르는 현재의 재일동포들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적이 된 범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앞서 언급한 A, G, K 등이다. A는 부모님이 한국적이어서 태어나 곧

41) 한국적을 '전략적으로' 보유하며 북한지향적인 사람이 있다고 지적하는 학자도 있다. 필자가 만난 사람들 중에 생활의 편의를 위해 한국적을 획득하고 지금까지의 동포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으나, '전략적으로'라고 단정짓기는 힘들었다.

한국적을 취득했지만 조선학교에 입학하여 민족성을 키우고 북한도 남한도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다. 그는 일본적을 취득할 예정이라며 조선계 일본인으로서 한국과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살고 싶다고 한다. G는 부모님이 한국적으로 바꾼 후 태어나 자연스럽게 한국적 동포가 되었다. 그녀는 일본학교를 다녔는데,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 그에게 민족을 일깨운 것은 고교 시절 유학동 선배로부터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다. 그는 대학에 들어와서 유학동의 열성 멤버가 되었으며, 북한 방문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국적이란 중요하지 않다. 일부터 부모님이 주신 국적에서 조선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K는 도쿄강제연행진상조사단에서 일했고 현재 사업을 하면서 도쿄의 조선초급학교에서 어머니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조선학교를 살리기 위해 손수 여러 수예품을 만들어 바자회를 열고 팔아 수입금을 학교 발전을 위해 쓴다. 자녀와 손주들을 모두 이 초급학교에 보내며 민족교육을 시킨다. 그런데 막상 자신은 일본학교를 다녔다. 아버지가 가족을 모두 데리고 한국국적을 취득할 때 자신도 한국적이 되었다. 그때 나이가 들었던 오빠들은 조선적이 옳다고 주장하며 조선적으로 남았다. 20세쯤 되었을 때 총련 사람들이 일본학교에 다니는 동포학생들에게 조선말과 역사를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해주었다. 그때부터 차츰 민족성에 눈을 뜨게 되었고 본명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학교' 졸업생이 삼성에도 취직된다면서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그룹은 외국 여행을 위해, 고향방문을 위해, 성모를 위해, 제사를 위해, 자신의 교육과 활동을 위해 스스로 한국적으로 바꾸었지만, 여전히 조선반도 전체를 자신의 고국으로 생각하고 통일조국을 염원하는 사람들이다. F는 부모가 강제연행되어 탄광에서 노동한 2세인데, 일본학교의 민족수업 강사를 하면서, 한국과 교류하기 시작하여 한국 방문을 위해 한국적을 취득했다. 다섯 명의 형제자매는 조선적과 한국적이 섞여 있

다. 그는 한국을 좋아하고 아들을 한국 광주에 보내 전라도 음식을 배워 오게 해서 큐슈에 한국식당을 차렸지만, 통일조국에 대한 염원이 매우 강하다. 90분간의 그의 강의는 하나의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넘친다. 그는 강의에 한반도가 하나로 되어 있는 통일지도를 사용하고, 중앙에 일본국기, 좌에는 인공기, 우에는 태극기를 그려 넣은 휘장을 걸며, 조선학교 출신 여성을 데려와 고향의 봄을 노래하게 한다. 그는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재일동포들이 남과 북을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길 애타게 바란다.

재일동포 사진작가 김인숙은 “부모님이 일본학교에서 차별 받는다고 조선학교에 보냈는데, 내겐 따뜻한 온실 같은 곳이었다. 조선적을 가졌을 때는 여권이 없어서 미국에 가려면 출입국 허가증이 필요했다. 공항의 보안 검색대에선 매번 가방을 뒤졌다. 현지에서 사고라도 당하면 난민 취급을 받았다. 한국국적을 얻으며 해외 방문이 편해졌다. 2003년 한성대학교 사진 영상과에 유학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은 그대로다. 지금도 한반도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다.<sup>42)</sup>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자신을 “조선”민족이라고 여겨서 “조선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서경식은 “나는 한국국적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민족적 소속을 표현할 때는 언제나 ‘조선’이라는 호칭을 의식해서 쓰고 있다. 그것이 분단되지 않은 민족의 총칭으로서 우선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조선인’이라고 말하는 경우, 그것은 국적이거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조선민족의 성원 전부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한다.<sup>43)</sup> ○○는 한국입국을 위해 영사관에 갔고, 국적변경을 요구 받았다. 국적을 한국적으로 변경했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변화된 것은 없다.<sup>44)</sup> 1972년에 일본에서 아쿠다가와상을 수상한

42) 주간조선, 「10년 전과 너무 달라져 조선학교 학생들도 소녀시대 노래 불러요」, 2010,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9&nNewsNumb=002120100016>

43) 서경식, 「반난민의 위치에서」, 숙명여자대학교 편, 『Post-colonial 시대에 있어서 재일조선인』, 숙명여자대학교, 2002.

첫 외국인이 된 이회성은 조국통일에 대한 열원 때문에 조선적을 보유한 채 1972년, 1995년에 한국을 방문한 후, 1998년에 “독재정권도 불완전한 문민정부도 아닌 진정한 국민정부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적을 받아서 한국에 자주 왕래하지만, 통일 조국에 대한 열원을 잃지 않고 있다.<sup>45)</sup>

이 사람들에게서 북한에 대한 진한 연민이 느껴질 때도 있다. A는 중학교까지 일본학교를 다니다가 조선고급학교를 택했는데, 처음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거부감을 느꼈고, 공산주의에 반발했으며, 김일성 중심의 교육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점차 왜 일본에 사는 조선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일제시기에 겪은 고통, 해방 후 심한 차별 속에서 북한정부가 내어준 따뜻한 손길, 민족학교 건립과 지원 등이 없었다면 재일동포의 현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것은 무조건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1960년대에 이미 북한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았지만, 어려울 때 도움을 준 것을 잊을 수 없고, 또 나의 조국이므로 께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에서 비판하는 바와 같이 북송동포들이 모두 핍박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자신의 사촌오빠가 북으로 가서 시골에 조용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왔다고 말한다. G는 원산에 처음 가서 사람들이 활기차게 왕래하는 것을 보고, 일본의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북한이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한다. 조선학교에 붙어 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은 학교의 이사장 정도로 생각하여 별다른 비판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R은 조선학교 출신으로 아버지가 총련 간부이다. 그는 한국인 뉴커

---

44) 강성현, 「국적의 정치와 조선적 재일」, 숙명여자대학교 편, 『Post-colonial 시대에 있어서 재일조선인』, 숙명여자대학교, 2002, 11쪽.

45) 김석범, 「지금 ‘재일 조선인’에게 ‘국적’이란 무엇인가?: 이회성에게 보내는 편지」, 『실천문학』, 봄호, 1999. 김효순, 『조국이 버린 사람들』, 서해문집, 2015, 31~34쪽.

며 교수와 결혼하여, 한국적을 가지고 한국을 자주 왕래하며 한국인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지만, 북한과 조선학교의 민족교육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조선학교에 보내고 있다. 그는 웃으면서 “아이들이 북한은 우리나라, 남한은 남조선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이 아이들이 한국을 자주 나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뵈고 그러니까 다 알아요.”라고 말한다.

## 2. 한국 지향

상당히 자연스럽게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재일동포들이 많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많아지고, 뉴커머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재일한국인’ 사회의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이 한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는 서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 민단으로 대표되는 한국에 대한 무비판적 일체화의 집단으로부터 한국에 대하여 객관적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 그리고 매우 비판적인 집단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식의 결이 다르다.

### 1) 본국정치와 긴밀히 연결

민단 간부나 열성멤버들은 한국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밀착되어 있다. 민단이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 대해 찬동하고 김대중 꺾박에 동참한 역사는 잘 알려져 있다. 남북관계가 다소 유연했던 2006년에 총련과 민단이 화해를 시도했을 때, 99%의 동포가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 달도 채 안되어 결렬된 것도 이러한 한국정부와 밀착된 민단 주변의 상황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sup>46)</sup>

반대로 1972년 7·4공동성명을 지지하여 8월 도쿄에서 결성된 민족통일협의회(민통협), 그 후 김대중 구출운동과 결합되어 한국의 민주화와

46) 이범준,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북콤마, 2015, 305~310쪽.

통일운동을 위해 1973년에 결성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1989년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등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운동하다가 고초를 겪은 그룹들이 있다. 1970년대에 한국에 유학 왔다가 '학생간첩단'에 연루되어 수많은 동포 학생들이 옥고를 치렀다. 그들 중 다수가 일본으로 돌아 간 후에도 한국의 시민단체들과 계속 연계를 가지며 활동하며, 한국을 자신의 모국으로 변함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깊은 민족이라는 의미를 느낄 수 있다.

## 2) 자연스럽게 한국화

본국정치와 긴밀하지는 않지만, 총련이나 조선학교에 적대적, 아니면 적어도 그로부터 멀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민중'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조선적이나 한국적, 민단이나 총련에 개의하지 않고 매일을 살고 있는 것<sup>47)</sup>과 비교된다. 이 사람들의 민감한 대응은 종종 민족통합이나 중립 조직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한다. 역시 남북관계가 유연했던 2002년 창립된 자이니치코리안변호사협회(LAZAK)는 2010년 일본 고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된 것에 대한 대응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분열되었다.<sup>48)</sup>

북한이나 총련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비판적 의식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친밀하게 된 경우도 적지 않다. S는 소, 중, 고, 대학교 모두 일본학교를 다녔으나, 늘 일본사람과 자신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24살 경에 조선사람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오면서 총련 일군이 되어 충실히 일했다. 그러나 점차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고 총련의 무능과 부패를 보면서, 조선적 동포 사회와 민족교육의 개혁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총련에서 축출당하고 2002년 한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47) 청구학원 교사 면담, 2016.11.

48) 주 42)와 같음.

한국 왕래를 자주하고 한국에 지인도 많다. 그러나 동포사회의 역동성을 놓치고 본국에 집착하는 총련과 민단 모두를 비판한다. 조선학교와 한국 학교 모두 질적으로 낮아서, 새로운 관점으로 국제적인 교육기관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비판한다. 조선학교는 한 학년에 3명 또는 아예 학생이 없는 곳이 많아지고 곧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그는 일본으로 귀화하는 것에는 절대 반대한다. 민족주체성이 확실한 한국사람 같은 일본사람이 더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윤건차는 2015년 일본에서 출판하고 2016년에 한국에서 번역된 방대한 저서에서 말미에 자신이 대학 때에 총련 조직을 통해 민족을 알게 되었고 대학원 시절에는 북한에 가서 사상교육을 받은 적도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한국적이었는데도 이런 일을 겪었다. 그는 그 교조주의적 체제와 행동에 적응하지 못해 총련에게 버려지고 이후 자연스럽게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인들과 교류하며 한국적 동포로 살았다. 한국에 잘 알려진 동포 학자 강재언은 1968년까지 총련운동을 했는데, 그 즈음 북한에서 이루어진 숙청과 김일성 신격화의 고조를 보며, 더 이상 거짓말로 강의하거나 쓸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sup>49)</sup>

### 3) 국제적 한국인

조선적 동포 중에도 물론 국제적인 활동을 하거나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나, 한국적 동포 중에는 이런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바꾸는 이유 중 하나가 해외여행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한국적 동포에게 국제적인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김겨레는 ‘세계화시대에 기여하는 재일조선인’이 재일동포 사

---

49) 윤건차, 『자이니치의 정신사』, 박진우 역, 한겨레출판, 2016, 515쪽.

이에서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서 재일동포를 보는 시선에 많다며,<sup>50)</sup> 자신도 고립된 재일조선인이라는 부정적인 존재를 벗어나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일본문화 한국문화 소유자라는 입장을 활용하는 삶을 영위하는 데 약간의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C는 재일지향이나, 본국지향이나의 이분법을 넘어서 동아시아의 지역적(regional) 존재로서 자기규정을 하는 강상중의 영향을 받아서, 한반도 중심주의를 넘어 동아시아의 Korean network론을 제창하기도 한다. M은 국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일본에서 코리아국제학원에 진학했고 그 후 한국으로 유학 왔으며, 미국 유학도 꿈꾸고 있다. N은 일본에서 재일동포의 권익 증진에서 더 나아가 인권을 존중하는 다문화사회 일본을 위해 활동한다. 이들은 국제화된 일본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재일동포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믿는다.

이러한 초국적성(transnationality)의 적극적 자기 평가와 일본사회 공헌 시각은 동화와 차별의 함정을 외면할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 VI.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동포들의 정체성

1990년대 들어 귀화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국적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더 이상 일본국적취득이 터부시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귀화인에 대한 재일사회 내의 차별이 감소하고 귀화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동포 집단 전체의 시각보다 개인의 결정이 과거보다 중요하게 된 상황에서, 국적의 의미를 새롭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귀화가 현재 재일한국인, 조선인이 취할

50) 그는 이것도 재일동포에 대한 하나의 억압이라고 호소했다. 김겨레, 「다문화 공생 일본과 은폐되는 식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참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적을 가진 한국인이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확산되고, 한국명을 유지한 귀화<sup>51)</sup>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이미 1980년대에 그 싹을 보였던 것으로 1985년 조직된 '民族名をとりもどす会(민족명을 되찾는 모임)<sup>52)</sup>는 귀화 시 등록한 일본명을 재판을 통하여 민족명으로 다시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일본적을 가진 한국인의 생활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일본국적 취득자들도 정체성이 다른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본인으로 동화되어 사는 사람,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더욱 큰 고뇌 속에 사는 사람, 한국계 일본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 등이다. 필자가 조사한 60여 명의 교포 중 일본적은 3명에 불과했으며, 그 3명이 모두 한국계 일본인으로 적극적으로 살고자하는 사람들이었다. 앞의 두 집단의 사람들은 그 성격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 1. 일본인으로 동화

앞서 본대로 2000년대 매년 1만 명, 2010년대에 5천 명 정도에 이르는 재일동포들이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일본사회로 동화되어 흡수되었다. 김겨레는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역사성을 가진 재일조선인이 간직하는 역사가 일본사회의 공간에서 희석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일본사회공간에 내재하는 폭력으로 보았다. 그는 식민주의적 무의식이 존재하는 일본사회에서 재일조선인문제는 식민주의 문제라고 지적한다.<sup>53)</sup> 필자가 만난 재일동포 중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51) 예를 들어 손 마이요시(孫正義)가 이에 해당한다.

52) 이것은 1994년 9월 발전적으로 해소했다.

53) 김겨레, 「다문화공생 일본과 은폐되는 식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2. 정체성의 혼란

재일동포 2세 양정명은 “우리들의 국적은 하늘에 있다”고 하며 자살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멸시받던 체험을 되살리며, 그의 부모에게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귀화하는 일만은 하지 않아야 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었지만 민족과 조국을 배반하고 일본국적으로 귀화한 것은 고뇌를 몇 배로 증가시켰다고 했다.<sup>54)</sup> 부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일본국적이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일본국적이 불편하다면서 선거는 안 한다고 한다.<sup>55)</sup>

## 3. 한국계 일본인으로 적극적으로 살기

앞서 언급한대로 귀화에 대한 편견이 약해지면서, 일본국적을 가진 한국계로서 적극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필자가 조사한 일본적 재일동포 세 명이 모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가네시로(金城)는 북조선에 충성하던 아버지가 한국적으로 바꾸자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그러나 스스로 ‘재일코리안’이라는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오히려 더욱 뚜렷하게 하며 살고자 한다.<sup>56)</sup> 박실은 귀화 후, ‘民族名をとりもどす会(민족명을 되찾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한다.

개인적 선택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성화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교통한다.

---

54) 서경식, 「반난민의 위치에서」, 숙명여자대학교 편, 『Post-colonial 시대에 있어서 재일조선인』, 숙명여자대학교, 2002.

55) 김겨레, 「다문화공생 일본과 은폐되는 식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39쪽.

56) 정병호, 「문화적 저항과 교육적 대안: 재일조선학교의 민족정체성 재생산」, 『비교문화연구』 제9집 2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3, 147~148쪽.

## VII. 전망

이렇게 국적이 분화하는 가운데 점차 국적이 이들 사이에 반드시 강고한 선이 그어져있지 않다는 것을 보았다. 조선적, 한국적, 일본적 재일동포들이 국적에 구애받지 않는 민족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 나서 자란 3세 이후의 동포들은 남북한 국가에 대한 귀속의식이 약하며, 남북한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조선민족으로 생각한다. 국적에 상관없이 재일동포들의 ‘커뮤니티’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같은 커뮤니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국적과 상관없이 같이 어울리고 같은 민족학교에도 다니고 있는 것이다. 최근 총련계 민족학교에 한국적 학생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렇게 볼 때, 재일동포 ‘커뮤니티’가 국적과 함께 재일동포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 간 경계가 지속되고 있는 모순이 재일동포의 현실이다. 1977년 사카나카(坂中英徳)가 쓴 논문은 재일동포 자연소멸담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재일동포의 정주 경향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이들의 귀화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21세기 초가 되면 재일동포는 소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sup>57)</sup> 그러나 2015년 말 현재 아직도 30만 명이 넘는 특별영주자가 남아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약 59만 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실로 상당한 수의 동포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민족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권리로서의 일본국적 취득 개념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정신이 일본 곳곳에서 느껴진다.

특히 조선적이 3만 명 조금 넘는 소수이지만 남아 있다는 것은 놀라

57) 1977년 논문과 그것을 둘러싼 토론들에 대해서는 坂中英徳, 『在日韓國·朝鮮人政策論の展開』,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1999를 참조할 것.

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도 곧 소멸될 것이라는 시각이 상당히 존재하지만, 앞서 논의한대로 통일지향 뿐 아니라 북한을 조국으로 인정하고 애착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 동포들 사이에 국적이 문제되지 않는다 해도 이렇게 불편한 한국적, 더욱 불편한 조선적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국적이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국적 때문에 동포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된다. 조선학교가 고교무상화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조선적과 한국적 동포 사이에 골이 패여 있다. 변호사 단체가 분리되고, 수많은 일본인들이 참여하는 반대운동에 한국적은 없다.

이 동포들의 국적이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심각한 경계를 만든다. 조선적 동포는 한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조선적 동포를 만나기 위해서는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조선학교와 더욱이 총련 근처도 가지 못한다. 동포들은 이러한 관계 때문에 정치적 희생물이 되기를 반복했다.

분단의 책임을 일본과 중국, 미국에 돌려서 그만이면 좋겠는데, 이 어려움을 남북한 주민, 재일동포 모두가 지고 있다. 남북한 정부와 사회는 책임이 없을까. 해결노력이 없어도 될까. 재일동포 민족정체성을 국적과 관련하여 볼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복잡한 우리의 상황 때문이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7년 3월 29일

논문 심사일 : 2017년 6월 2일

게재 확정일 : 2017년 6월 11일

## 참고문헌

- 강성현, 「국적의 정치와 조선적 재일」, 숙명여자대학교(편), 『Post-colonial 시대에 있어서 재일조선인』, 숙명여자대학교, 2002.
- 강철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의 노선전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김겨레, 「다문화공생 일본과 은폐되는 식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김광섭, 「재일코리안과 일본국적 취득문제: 법.제도와 아이덴티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김근오, 「재일한국인의 국적을 둘러싼 제문제」 『비교민속학』, 22집, 2002.
- 김석범, 「지금 ‘재일 조선인’에게 ‘국적’이란 무엇인가?: 이회성에게 보내는 편지」 『실천문학』, 봄호, 1999.
- 김숙자, 「재일조선인의 정체성과 국적」,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요자, 「1990년대 이후 마당운동과 재일한국.조선인의 아이덴티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 김현선, 「재일밀집지역과 축제, 아이덴티티」 『국제지역연구』, 제20권.2011.
- 김효순, 『조국이 버린 사람들』, 서해문집, 2015.
- 박경남, 『우린 행복하려고 태어난거야』, 김경원 역, 북뽕, 2016.
- 서경식, 「재일조선인의 위기와 기로에 놓인 민족관」 『역사비평』, 33호, 1996.
- 서경식, 「재일조선인의 나아갈 길: ‘에스닉마이너지티’인가 ‘네이션’인가」, 『창작과 비평』, 102호, 1998.
- 서경식, 「반난민의 위치에서」, 숙명여자대학교(편), 『Post-colonial 시대에 있어서 재일조선인』, 숙명여자대학교, 2002.
- 윤건차, 「21세기를 향한 ‘在日’의 아이덴티티: ‘관계성’의 모습」, 강덕상 외 (편),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윤건차, 『자이니치의 정신사』, 박진우 역, 한겨레출판, 2016.
- 이범준,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북콤마, 2015.
- 임수연, 「일본에서 ‘재일한국인’으로 살아가기」, 『현상과 인식』, 봄/여름호, 2006.
- 정병호, 「문화적 저항과 교육적 대안: 재일조선학교의 민족정체성 재생산」, 『비교문화연구』 제9집 2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3.

- 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서울대출판부, 1996.
- 정진성, 「'재일동포' 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 『일본비평』, 제7호, 2012.
- 조현미, 「일본인의 대한의식과 재일동포의 아이덴티티」, 『일본어문학』, 제23집, 2003.
- 진희관, 「북한과 조총련의 관계 변화 및 민단-조총련 관계개선 방안 모색」, 『통일문제연구』 제15권 1호, 2003.
- 한영혜, 「일본의 다문화공생담론과 아이덴티티 재구축」, 『사회와 역사』, 71집, 2006.
- 福岡正則, 『在日朝鮮人・韓國人-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 中公文書, 1993.
- 民族名おとりもどす會 編, 『民族名おとりもどした日本籍朝鮮人』, 明石書店, 1990.
- 在日コリアンの日本国籍取得権確立協議會 編, 『在日コリアンに権利としての日本国籍を』, 明石書店, 2006.
- 坂中英徳, 『在日韓國・朝鮮人政策論の展開』,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1999.

Abstract

## Nationalities and Identities of Koreans in Japan

Chin-Sung Chung

This paper seeks to elucidate the national identity of Koreans living in Japan with a special permanent resident status through in-depth interviews. In that not only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but als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have maintained the nationality of their ancestral homeland without being naturalized nearly a century after the initial migration to and settlement in Japan, Koreans in Japan with a special permanent resident status are special in an unprecedented manner worldwide. Although it is clear that this group will decrease in number in the distant future, they nevertheless and undoubtedly will remain a very meaningful social entity for a considerable time. Just as ethnic Koreans' living conditions vary, their identities likewise are diverse indeed. Because the question of "Who am I?" is deeply linked to nationality in the case of Koreans in Japan, national identity occupies the greatest share of these people's identities. Unfortunately, however, that national identity is not simply connected to a single nation-state due to the continuing division of Korea. This paper traces the identities of Koreans living in Japan with questions on the meanings of nationality and nation that they seek to preserve.

### Key words

Koreans in Japan, special permanent residents, identity, nation-state, nationality, nation, naturalization